

99 여성연대한판

당신의 의심을 차양하며
그대의 상상력에 불을 당겨라!

99.7.23 - 25

동 덕여자대학교

동국대총여학생회, 동덕여대총학생회, 동덕여대 야간학과 총학생회, 성균관대총여학생회, 서림대총여학생회, 중앙대총여학생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전주대 여성위원회, 한림대 여성모임, 한양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행동위원회, 숭의여대 여성행동위원회, 호원대 여성행동위원회, 서울여대 남경달기, 성신여대여성모임, 숙명여대여성모임, 홍익대 여성모임 편지, 원보대 둘꽃,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여성자치연대, 대경여성주외연대회의 相女 (경북대 사회대 여학생위원회, 경북대 실대 여학생위원회, 호성여고 적대학교 성별지위원회, 영남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계명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BUT), 경기남부 여성연대회의 (주원대 여성행동위, 성대울펜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충북 지역여성연대회의 (충북대총여학생회, 대전산업대총여학생회, 한국고원대여성모임), 삼천리는 세상, 여성노동, 성폭력연대회의와

여성주의자인 당신이 함께합니다.

'99 여성연대한판에 온 여성주의자들에게

푸 우

아~~도디어 여성연대 한판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막상 인사말(어라고 하기에 좀...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도 되!)을 쓰려고 하니 도디어 시작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사람들이 별로 안오면 어떨까? 포로그럼이 저루하면... 등등의 널널 생각이 다 든다.

한판의 조동모임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을 준비해 온 여년 '99 여성연대 한판! 자신감과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좌절과 무력함을 겪게 한 준비 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찬 활기차고 자유롭게 여성연대 한판을 준비했다. 계획단이 꾸며지고 펄변의 논의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모두들 '99 여성연대 한판에 가는 기대가 크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그 기대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충족되어 질 수 있을까?

여년 여성연대 한판에서 피폐한 충족감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자. 그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의 표정과 몸짓, 눈빛을 보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여성운동의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히 족하다.

만약 그것이 제외되면,

'99 여성연대 한판은

여 무덥고 끈적끈적한 한여름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여성주의와 노동

목 차

우 인사말	2p
우 목차	3p
우 전체 일정	4p
우 기획의도	5p
우 Young feminist 로의 정체성 찾기-mind map	6p
우 여성주의적 조직론	9p
· 여성운동의 조직과 여성운동의 운영을 중심으로	
-연대모임의 조직에 대한 간단한 글 한편	
우 여성주의적 방법론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 모색	30p
-대학 여성노동운동의 전략적 모색을 위하여	35p
우 공동체 프로그램	
· 여성주의 파이프스로 한국 가부장 사회를 감염시켜라!	41p

'99 여성연대한판 전체일정

23.금



p.m. 2:00 한판 여는 마당
2:30 공동체 프로그램
...학생관 3층 대학극장
5:30 저녁식사 ...승인관 학생식당
6:00 Young feminist 로의 정체성 찾기
- mind map ...대학극장
10:00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운동
중간 및 이후 논의
...학생관 1층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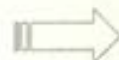
a.m. 8:00 아침체조 운동장
9:00 아침식사
10:00 여성주의적 조직론 1원
- 여성운동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대학원 210
2원 대학원 202
p.m. 2:00 점심식사 ...이무대나
3:00 싸움아다나기 ...민주광장및대학극장
4:00 여성주의적 방법론 1원
-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대학원 201
2원 대학원 202
8:00 저녁식사 ...이무대나
9:00 문헌제 ...대학극장

24.토



a.m. 9:00 아침식사 학생식당
10:00 여성운동 네트워크망 구성에
대한 논의 ...대학극장
11:00 조별 중환
2:00 한판을 실천하러!

25.일



여성운동도 이제는 대학내에서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하며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여성주의를 표방한 여성운동 단위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자라난 여성운동 단위들간의 소통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98년 여성연대 한판은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성과를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다.

- 1)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전국적인 흐름으로!
 - 2) 여성운동단위의 연대 속에서 여성운동의 주제를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 3) 여성주의적 문화의 공유를 통해 대안적인 문화의 구성을!
- 이러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98년 여성연대 한판은 많은 문제의식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99 여성연대 한판**은 '98년 여성연대 한판의 성과를 한 단계 넘어서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기획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과 운동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여성연대 한판"을 각자들의 고민들을 풀어내고, 만인들의 여성운동으로 만들어 내는 자리로 구성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이 산재해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유행이지만, 여성운동은 거리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가들의 부족으로 인한 활동성의 저하, 우리가 속한 각 공간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들, 연대의 방식들, 타지방의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와의 정보교류, 소통.....이것들이 우리가 답답해 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세롭거나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여성연대 한판"에서는 여지껏의 논의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99

여성연대 한판을 기획하며

한판기획팀

Young Feminist! 자기 정체성 찾기

- Mind Map

...들 여기에서

여성운동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론 계한으로 바뀌치기가 아닌가? 졸업이후 대학이 아닌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성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가족과 친구 등, 일상에서의 무수한 관계 속에서의 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고민들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일종의 위안을 얻는다.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며,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조바심내지 않고 머리 속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개인의 일상의 연대와 소통이 이 곳에서 이루어 진다.

1. 자기정체성!

'나는 내가 지난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음하하, 우리는 늘 스스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만이 아닐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정체성이란 물 흐르듯이 변화하는 것, 정확하게 하나로 딱 꼬집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운동가로서의 자기를 명명하고 있는, 명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판에 모였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무의식 중에 틀지우고 있어서 고이게 했던 무수한 고민들을 해체하고 재구성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여성운동, 여성운동가, 나를 억압했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듣고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만일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실히 찾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려고 한다면 과감이 포기하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보고 듣고 느끼고만 가겠다고 생각했으면 한다.

2. 프로그램

◆ 벽 깨기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위임업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라고나 할까? 자신이 얻어가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이 프로그램의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수위조절이란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부담을 느끼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로그램이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100m 달리기

우리의 모든 일상적 움직임은 기계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걸음걸이가 가장 기계화된 동작 일 것이다. 장소에 따라 걸음세가 약간씩 달라지기는 해도 말이다. 저마다 특유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걸음걸이가 굳고 있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걸음세를 변화 시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우리가 몸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게임의 원칙은 리더가 설명하는 대로 다양한 속도와 방식으로 걷고 뛴다. 단 원칙은 움직이면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웃으며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면 걸기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최면을 거는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최면에 걸린 역할을 한다. 리더는 상대를 향해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갖다 댈다. 그러면 상대 배우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얼굴 앞에 있는 그 손에서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손바닥이 턱 아래로 내려와도 안되고 손가락이 머리카락 위로 올라와도 안된다. 리더는 온갖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평소엔 거의 쓰이지 않던, 몸에서 '잊혀졌던' 근육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두 손으로 최면 걸기, 손과 발을 이용한 최면 걸기, 몸 전체로 최면 걸기)

◆ 이미지 연극

동일한 주제를 던져 주고 나서 잠깐의 시간을 주고 연상되는 느낌을 정지된 동작으로 표현하게 한다. 단 이 때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볼 수 없게 한다. 그 이후 눈을 뜨게 한 후 서로의 동작을 공유하게 한다. 이제 거기에다 리듬을 붙이게 하고 이어서 대사를 붙이게 한다. 그 이후에는 서로 서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유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이후에 관계 맺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 하고 정리한다.

여성/ 여성운동/ 여성운동가/ 자기전망/ 자기를 억압하는 원인 등이 주제가 될 수 있겠지

◆ 상황극

앞서서 이미지로 추상화시켰다면 이번에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재로 하여 조별로 상황극을 짜는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극화할 주제들을 잡고 형식은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한다. 일상과의 괴리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의 여성주의의 실현/ 자신의 전망 등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총화

상황극 총화와 더불어 처음에 갖고있던 기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자보에 써서 공개한다.

여성주의적 조직론 발제문

여성운동의 조직과 여성주의적 운영을 중심으로

중(中) 여성주의 조직에 대해..

0. 들어가며

작년 1998년 여름 여성연대 한판에도 조직론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총여학생회와 여성위원회, 연대모임, 성폭력연대회의의 발제를 중심으로 대학내 여성운동의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각 단위의 조직상황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추려내었으며, 이후의 전망을 내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조직론이란 주제 자체가 쉬운 편이 아니어서, 첫 토론회이다보니 술한 고민들을 한 자리에서 붓물을 띄우려고 하다보니, 토론회에 참여한 구성원의 배경지식의 차이가 너무 컸던 이유로 토론회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었다. 작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내 여성운동 각 조직들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총여의 한계와 자치단위조직들의 체계없음에 대한 양비론적 시각이지 않았나 한다.

올해도, 대학내 여성운동 조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직론 준비팀의 초기 논의는 작년 조직론 토론회의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90년대 말 대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운동 조직의 외연에 대해 긍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들 각각이 속해있는 조직의 문제점,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들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대만의 발견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찾지 않기로 한다. 바로, 함께 운동하고 있는 각 대학내 여성운동 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타학교 조직의 장점을 자신의 조직의 장점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심을 둔 것이다.

1. 대학내 여성운동의 역사

이주대, 박세원의 학사논문 글임.

◆ 여학생회의 형성

여학생회 조직 생성의 배경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남녀공학을 표방한 이래로 수많은 남녀공학들이 생겨났다.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법대나 의대, 공대에서도 여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대학내에서도 여성은 대학생이 아니라 여대생이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활동할 지라도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여대생들은 각각의 대응책을 찾아야 했고 여성성을 거세한 채 남성화되기도하였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했다.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유화국면을 타고 각 학교에 총학생회가 건설되고 80년대 중반 학생운동에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학회들이 여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학생회 건설 붐을 타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형태를 갖춘 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여학생 조직 역시 학생운동조직과 마찬가지로 여학생학회를 중심으로 학생회 건설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회로 대변되는 여학생조직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학생들이 학우들의 고민은 학생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당시의 흐름을 타고 건설

했다는 정도만을 찾을 수 있다.

◆여학생회의 형성

학원 자율화 조치 이전인 1983년 성균관대학교에는 학도호국단 체제하에 여학생제대를 두게 되고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고려대와 서울대에 총여학생회가 발족하고 1985년 성균관대와 한양대, 서강대에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는 것을 비롯하여 여학생들은 비정규 조직을 벗어나 보다 공인된 체계를 지닌 대표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운동체에는 그 존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학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건설과 해소를 반복하면서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1987년에 전국 10여 개 지역에 지역별 연대체가 생겨나 1989년에는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건설되면서 각 학교의 여성운동단위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에 기층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전여대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든다. 서울지역을 비롯한 몇몇 큰 대학들에 학생회체계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여학생회가 잇따라 자리를 잡게 되자 상대적으로 뒤늦게 학생회가 건설된 지방의 대학들에서도 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들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는 과정은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한 조직구성이 아니라 완성된 학생회 체계가 갖추어야 할 일종의 구색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체는 대개 각 학교 학생운동 진영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학생인 경우가 많았다.

◆운동의 관점과 주요 활동

이 시기 여학생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행했던 주요 활동으로는 1980년대 중·후반경 빈민 연대활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보육활동,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범죄 근절(주한미군철수)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고 사안별 활동에는 고용평등법 제정시기에 이루어졌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항의활동, 김보은·김진관 사건당시 벌였던 석방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농민학생 연대활동에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분과의 명칭이 부녀반에서 여성농민반으로 바뀐 것도 1990년대 초반 무렵이다.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성을 매개로 한 사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활동이 점차 늘어났다. 이들의 운동은 여학생운동이라고 불렸으며 기존운동의 한 부분으로 여학생들이 주체가 된 운동, 혹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비민주적인 일들에 대한 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학생들의 운동은 이른바 상위운동에 반드시 복무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학교 밖의 여성운동이 지식인 여성이나 중산층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성 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르주아 여성운동으로 이해되었다. 당시의 풍토에서 여학생들의 운동이 부르주아 여성운동을 추종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다.

◆외부의 반응

학생운동 내 금녀의 벽을 깨는 것에서 여학생들은 운동은 시작하였으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학생운동내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민주화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기존의 학회들에 대한 대안으로 여학생학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거나 현장에 뛰어 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학회들이 여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혼성학회들이 늘

어나면서 여학생학회들은 와해되거나 학생회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학생운동 내에서 여학생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문제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다.

◆ 여학생회를 넘어서

전환의 배경

1990년대 초·중반 무렵에는 여대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어문계열과 사범계열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기계, 우주, 토목 등 여학생이 전무했던 이른바 남자학과에서도 여학생들의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다. 각 대학에는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70년대 후반 여학생 조직 건설을 주도했던 이들과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을 비롯한 여성운동가들이 강단에 서기 시작했다. 학회나 동아리는 물론 학생회장으로 여학생이 나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성정치 이론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되곤 하는 일련의 여성주의 이론들은 대학여성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여성주의 이론들과 성정치 담론은 성의 문제가 다른 정치적 문제들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성문제에 대한 다각적, 포괄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에서는 1995년의 성정치 문화제를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신정후 교수 성희롱사건으로 대변되는, 1990년대 초반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기존의 학생운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성적 화두를 가지고 운동에 뛰어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새로운 질서

여학생회 건설 이후 길게는 약 십여 년 간 이어져 오던 여학생들의 조직은 전국조직·총학생회·단위학생회로 이어지는 학생운동조직과 같은 형태로 전여대협·총여학생회·단위 여학생회의 형태로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무렵 수직적 위계에 대한 반발과 대표체로서의 여학생조직에 대한 문제제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몇몇 학교들에서 총여학생회가 해소된다.

총여학생회 해소는 수직적 체계를 버리고 수평적인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치의 의미를 잃어버린 학생회 체계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 여성문제가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성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 권위적 조직에서 탈피함으로써 여성적 조직 질서를 형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총여학생회를 직선제가 아닌 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그와는 별도로 총학생회에 여성국 또는 성정치위원회를 두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고민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총여학생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학교들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에 총여학생회와 수직적 관계로 이어져 있던 단위 여학생회들이 대의제에서 탈피하여 위원회나 소모임으로 바뀌기도 하고, 혼성의 구성원을 가지는 여성자치 모임이나 여성학회들로 전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화된 여성문제를 다루는 특별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학
번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학회를 조직하거나 학내 여성학 연구모임들의 연대체 또는 학
교에 상관없이 공통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모임을 만드는 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1995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특별기구로 여성위원회가, 1996년에 대학사회에 성폭력의 심각
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들꽃모임, 서울대 내의 여성운동단위 연대기구인 관악
여성모임연대, 1997년에는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생겨
나면서 지역별·주제별로 각종 모임들이 생겼다.

2. 구체적 자료

[자료-1]

아주대 5대 총여학생회와 인터뷰

1. 각각 조직

1) 총여학생회 건설배경

총학생회 산하 여학생회 기구였고, 여학
생회는 간선으로 지명간부가 운영을 이끌어
갔다. 총여학생회로 전환된 배경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3대까지 자주적 총여학생
회였다.

2) 현재 총여학생회 위상 및 상황

① 학교상황

■ 전체 여학생 수: 8000명 중 약 1900명정
도. 해마다 1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 학우들의 관심정도: 학생회에 대한 반
감과 더불어, 학생회 조직으로서의 총여학
생회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학우들과 피
드백이 잘 안된다.

■ 학내 학생운동단위와 관계: 학내의
여타 학생회들은 대체로 여성운동을 지지하
고 있다. 이는 총여학생회가 여성문제를 당
당하는 유일한 공간이며, 총여가 여성운동
이외 학내에서의 사업이나 투쟁에 결합(동
북금 삭감 투쟁 등)하기 때문인 듯 하다.

■ 기층여성운동모임: 타 여성운동단위는
화생공 여성위원회와 의학부 여학생회가 있
다. 과거반으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
으며, 어느 정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② 연대상황

■ 학생회 단위와 연대는 앞서 언급했듯
이 학내 사안에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현장활동, 여성농민반 주체 및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 경기지역의 여성단위들: 수원대 여성행
동위, 성대 을 전 총여학생회와 함께 경기
남부 여성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③ 재정상황

재정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학
생회비가 1인당 7000원 정도이고, 통합고
지를 하지않기 때문에 절대적 예산액 자체
가 적다. 학생회비의 5.6%로 400만원. 교비
지원은 40-50만원. 단대 예산보다 낮은 편.
재정을 인상할 생각이 있으나, 전체예산이
위낙 적기 때문에 학생회간의 다툼이 심하
다.

④ 사업

해오름제, 대동제 중 여학생 체육대회. 탕
토크를 진행, 여성문화제특별 주간(올해는
여성노동주제로), 연대활동으로 학원 민
주화 투쟁, 동학운동을 진행. 경기남부 여성
연대모임 준비 중, 농촌현장활동, 여학생간부
간담회.

일상적인 사업으로 내부 멋거리, 외부 멋
거리(토크, 영화상영)

⑤ 재생산

사업을 통해서 재생산하거나, 친분관계로
인자를 확보하는 형편이다. 안정적인 조직
화를 위한 사업은 없다. 여성문화 모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3) 총여학생회가 갖는 장단점은...

① 전반적인 평가

■ 장점: 예산과 공간이 확보에 유리하며,
기층 여성운동단위를 지원할 수 있다. 직선
체제이기 때문에 학내에서 조직의 위상과,
간부의 학내 발언력이 높다.

■ 단점: 여성운동만 하고 싶어도 학생회
이기 때문에 학생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2. 운영체계

1) 현재 학교의 운영체계

고정적인 운영체계가 없다. 집부가 5명
인데, 사업별로 주체를 정하고 팀을 이루어
사업을 진행한다. 집부들의 생활이 생활공
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체계의
바탕이 되고있다.

회장단은 중운위 등 회의에 나가는 것은
담당한다. 그러나 총괄하지는 않는다. 총여
학생회 회의가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
소통의 문제는 없다.

2) 장단점

■ 장점: 인자들이 바라는 사업을 선택하
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주체들의 욕구충
족도가 크며, 사업의 진행이 자율적이고 전
문적이다. 주체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의 팀
을 꾸려가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고, 새
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기에 좋다.

■ 단점: 사업의 조직적인 진행이 되지 않
는다.

3) 극복하기 위한 노력

조직적인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는 원인
이 자율적 팀별체계 자체문제. 있지는 않다
고 본다. 그보다 사업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판단된다. 국별체제로 바꾸려는 생각은 없
다.

[자료-2]

서울시립대 15대 총여학생회와 인터뷰

1. 각각의 조직

1) 총여의 건설 배경

서울시립대에서 1-8대까지의 총여는 독

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으로 나서지 못했고,
총학생회의 하부 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초창기의 1, 2, 3대 총여는 총학생회라는 조
직이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보이는
한계지점-진보적이라는 운동조직에서 보이
는 가부장성이나 보수성-을 깨달고 여성문
제를 고민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총여를 사
고한다. 하지만 여학생회의 출발 자체가 운
동권 조직에서 파견된 주체들에 의한 위로
부터의 건설이었다는 점에서 한계지점이 형
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총여의 집행부들은
조직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독
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으로서의 총여는 자리
잡지 못하였으며, 재생산 또한 실패하게 되
었다.

93년 9대 총여가 '성(性)'에 대한 담론화,
학내의 여학생 복지에 신경을 썼다. 13대는
총여가 총학과 공동선원으로 꾸려진다. 14
대에는 다른 단위와는 다른 독자적인 '분리'
를 추구한다. 학생회운동에 있어서 총여에
대해서 강요되는 부분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운동단위로서 총여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
리고 '성폭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한다. 15대에 '여성주의'를 처음으로 표
방하고 나선다.

2) 현재 학내상황과 총여의 위상

■ 총여의 위상: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에
속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동아리
연합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이에
대한 회칙상의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학생회비에서의 예산은 학생회비 전체의
6%정도(8~90 정도)이다. 하지만 학생처로
부터 기성회비를 비교적 많이(7~800) 받는
다. 학생회비에서 총여의 비중이 작은 것은
총여에 대한 다른 단위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 공간 및 재정: 총여학생회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은 하부단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단대들보다 적게 확보. 현재 줄고 있는 상황 (전체 학생회비 대비 6.2%→6.0%→약 5%)

■ 학생회: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공격받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총여 자체를 총학생회나 단대 학생회처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로부터 '총여가 뭐냐?'는 식의 공격은 있었다. 이런 반응은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중운위 같은 단대 중심의 회의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지는 않다. '너희 뭐 하는 거 있냐... 하부단위도 없으면서...' YWCA와 뭐가 틀리냐? '왜 주변부에만 머물러 있느냐? 여성운동에 대한 개량주의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다.

■ 학내분위기: 총여학생회를 성애기만 하는 비권으로 본다. 비주류 운동으로 규정을 내린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통신, 홈페이지, 화장실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 여학생처의 존재여부: 여학생처가 아니라 여학생 센터 및 여성연구소를 공약으로 13대부터 제시 하고 있다.

■ 선거 투표율: 13대부터 단선이었으며, 총여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다른 학생회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14대 67%, 15대 57%였다.

■ 기층여성운동 단위의 활성화 정도, 총여와의 관계:

-학내 소모임은 97년에 13~14개였고, 현 99년에는 5개정도가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3개 정도이다. 예전에는 단대 여학생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해체된 상태이다.

악간의 움직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친목 도모를 위한 여학생 모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학내 소모임들이 총여와 굳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소모임들은 과 소속으로

존재하면서 총여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소모임 자체가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 재생산 문제: 시립대 여름 행사인 여름 학교에 무려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다. 또한, 선거시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을 만날 수 있다.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다. 사랑을 만드는 전략이 부재. 인맥에 의지... 동원력: 대동제에 100명, 성교육 강연회에 50명 정도..

■ 달력식 사업

2월 새터, 강좌에 참여한다. 각 단대의 새터에 방문, 전체 강좌를 따내기도 함. 4월 해오름식, 5월 대동제, 4-5월 '성과 친해지기'를 계획. 이것은 13대의 '성폭력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다..

6-7월 현장활동: 빈활은 13대 때에 총여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후로는 가지 않게되었다. // 농활은 큰 대동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의식보다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는 선에서 참가하고 있다. 농활에서는 여농반 준비에서 어느 정도 큰 역할을 맡고 있다.

9월 누리제(총여학생회 자체 여성제)

11월 선거

일상사업: 화장실 게시판을 설치하여 매주 내용을 바꿔가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문과 중도 앞에 '동정 게시판'(총여게시판)을 설치하여 매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3) 총여학생회가 갖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장점: 재정과 신뢰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재정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총여학생회'라는 학우들의 대표체이기 때문에 발언력이 높다. 특히 성폭력 같은 문제에서 발언력을 획득할 수 있다. 대사회 적 발언력 또한 획득하게 된다.

'학생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여성학 강의 평가, 여학생 센터 등 학교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타 자치조직형태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

교를 상대로 여학생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여학생휴게실이나 화장실 같은 여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학교측에 요구하여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가 있다. '복지와 정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총여 뿐만 아니라 학생회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소모임을 만들 수 있는 여력 또한 총여학생회의 장점. 지원하기 쉽다.(15대 공약으로 여성주의 문화모임 'must'를 만들었다.)

2. 내부운영체계

1)시립대의 운영체계

-정책관련 부를 구성하는 등의 부서체계(화장단, 성문화부, 취업부, 사무장) 이전에는 선전부, 정보통신부가 있었다. 전대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부가 취업부가 있었고, 연사부, 정책부 등 이전 국별 체계와 같은 체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주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15대에서는 성문화부, 취업부를 중심으로 팀체계의 성격을 갖는 체계로 가고 있다.

-사업은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성문화부장이 성폭력 연대회의를 나가는 식으로 진행.

-현재 회장단은 장이 대외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부장이 정책 및 내부 관리를 총괄하는 형태로 활동한다. 이렇게 회장단의 활동은 내부/외부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

-각 국과의 관계: 매일 조례가 있고, 매주 정기회의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함.

-지금까지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총여의 내부 운영에 있어서 지향하는 것은 의견이 공유되고 서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점은 권력집중과 공유 없는 명령하달식 운영이다. 이런 것은 총괄을 회장단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부장의 체계는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여성주의적 '평등'의 지향과의 괴리 발생한다.

2) 장단점

■단점: 행사시 운영체계: 행사 때는 팀별로 행사준비를 한다. 한번은 자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팀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마인드 조율의 실패와 성실성의 문제로 인해서 자부단이 잘 굴러가지 않아 팀별 구성이 잘되지 않았다.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행사가 있을 때 일은 부서와 관계없이 거의 개인에게 분담된다. 여기서 의견 조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자료-3]

위원회 체계에 대한 인터뷰

고대여학생위원회와 이화여성위원회
를 중심으로

0. 들어가는 말

고대 여위와 이화 여위를, 발전적 여성주의 조직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놓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공학과 여대라는 지형의 이해이다. 지형의 차이는 운동기반의 차이이며, 실질적으로 운동의 수위나 운동의 방향성의 차이를 낳는다. 이화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경험의 공유가 운동의 기반이 된다.

물론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의 가부장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그나마 유리한 조건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고대의 경우는 실제로는 고대 내 여학우를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남학우부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이고 심지어 진보적(?)인 운동세력, 그리고 제자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여학우들까지 다양한 수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글구성은 인터뷰의 순서대로 여위의 역사, 학내상황, 조직체계, 내부운영체계의 순으로 비교, 장단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여위의 역사

고대 여위는 총여 해소를 거쳐 여학생위원회 건설한 경우이다. 84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1대 총여학생회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 여학운동위 상황과 마찬가지로 회·부·논·쟁과 민족해방계열과 노동해방계열의 틀바구니 속에서 89년 6대로 해체된다. 공백기를 거쳐 총학 산하 특별기구 형태로 1대 여학생위원회가 건설되지만 임시기구라는 문제점 및 계속되는 정파갈등으로 3대 때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후 96년 4대 여위가 건설되어 현재 7대 여위로 이어지고 있다. 총여가 아닌 위원회로서의 4대 여위는 현실 역량 타진의 결과물이다. 즉, 총여나 여위나 문제는 총여를 건설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선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4대 여위는 임시기구가 아닌 회칙 내에 특별기구 중 부문계열기구로 정식인준받고, 독자적 예산집행을 하여 운영된다.

이화여위의 건설 이전에는 각 단/과 차원의 여성국/여성부/여성학회 등이 자생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을 조직화·세력화할 수 있는 총학생회의 여성국(부)이(가) 매년 정파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당보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독자적 여학단위가 학내에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층단위의 여성조직들은 90년대 초반부터는 점차 쇠퇴 분위기를 형성하다 1대 여위가 건설된 96년에는 거의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위원회는 여대라는 특수성으로 총여학생회의 형태가 불가능한 속에서 96년 28대 총학생회의 공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해 여성위원회는 한학기간의 총학생회 산하기구에서 독립하여 자치단위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위라는 말 자체도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가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계속 논의지점으로 남고 있다.

2. 학내상황

1) 학내 여학생 비율과 학교당국의 상황

학내상황은 고대와 이대 양 학교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의 경우에는 4500명 정도의 전체 학생수의 25%의 여학생비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대는 15000명의 100%의 여학생 비율이다. 학교당국의 상황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두 단위의 운동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고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당국의 행정이 남학생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동시에 여학생의 복지 혹은 권리가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에 독자적인 여학생당당행정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여학생회관을 관리하는 여학생감(보직교수)이 1인 존재하고, 역할은 여학생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으로 지워져있으나 제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나 여학생취업대책에 대한 학교 활동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이혼중인 여학생 대상의 취업강연이 한차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성폭력사건은 학교측의 명확한 책임이 진행되는 사항은 이화대동계에서의 고대생 집단성폭력이 유일하다. 이것도 학교측의 명확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여론과 이화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해결의식에 의한 타의적 책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담당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여위가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고대여위가 학교상황에 기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은 바로 학내 교육환경권(생리대 자판기, 화장실 개·보수, 내설있는 여성학강의의 개설 등)과 여학우 취업대책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화의 경우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은 학교행정을 수행하는 여교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유리한 면과 대학원 내에 여성학과가 있고, 교양과목으로서의 여성학 강의 또한 여성주의적인 학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성학과 개설 여성학과목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전공과목에 있어서도 여성학적인 주제의 강의를 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학교당국의 관심도가 높다고 보여지나,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고 있다. 현재 학내에 성폭력 전문 상담기구나 해결기구가 없고, 타학교와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관계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환경 등은 총학생회가 담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여성위원회가 고민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편이다. 그리고 취업대책의 경우 취업지도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이지 못한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타학교에 비해 여성중심의 취업 설명회 등이 자주 열리는 편이다.

2) 학내에서 여위의 영향력

고대와 이대 뿐만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단위들이 학내에서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세인 것 같다. 고대여위의 경우 타자치단위(환경위원회, 장애우 인권 운동 동아리, 교육 운동하는 문대학회, 동성애 운동 사랑과 사람)에 비해 활동이 가시적이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회는 자신들의 학생회라인이 중심이 되는 운동에 전념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치운동에 대한 지지경향은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여위는 어찌되었건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화의 경우, 학내의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 자치단위는 자치단위 연석회의라는 틀거리로 묶여져 있다. 현재에는 생활도서관, 시네마매고, 제2대학, 노동과 경제통제, 이화동일운동본부 한울타리 가 활동하고 있고, 연석회의를 통해 서로의 활동을 강제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위 단독으로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회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전에는 초기에 성격이 다른 여러 단위가 묶임으로 인해 자치단위의 상을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3) 재정

고대 여위와 이화여위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고대여위의 경우 회칙내의 특별기구 중 부문계열기구(언론출판협의회, 복학생협의회, 여학생위원회, 운동단체협의회, 응원단)로 인준되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충당

한다. 이는 이화여위에 비해 안정된 재정을 보장한다.

이화여위의 경우는 이화내 예산자치제(총학 예산의 20% 이내)가 회칙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 중 90%는 자치단위 연석회의에서 독립적으로 재정 분배 및 심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총학 예산의 20% 이내라는 명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매 분기마다 재정은 영회의(총학 사무국장 1인, 자치단위 연석회의의 재정관리자 1인)를 통해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정파마다 자치단위에 대한 상이 다르므로 매 회 다시 자치단위의 상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치단위가 계속 늘 것이므로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을 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단위 연석회의와 재정운영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 회칙을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아니면 자치단위연석회의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화여위는 학생회비에서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없으므로 교비지원을 받고 있다.

4) 학내 여성운동조직의 상황

현재 고대내의 여성운동단위는 여위, 안암 여학생연대회의, 석순, 법대 여학생회, 경영대 여학생회, 법대 여성학회 하늘의 절반, 경영대 여성학회, 문대 심리학과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문대 사회학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정대 여성학회와 똑바로 살아가, 사범대 국어 교육과 여성위원회, 여학생자치공간 마실, 애기는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 이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37명 정도가 되고, 적극적인 지지자까지 아우른다면 4,50명 정도가 된다.

고대에서는 13개 정도의 소모임과 조직이 있다. 학회 유지는 어려운 편이고, 여학생회의 경우 활동의 안정성은 있다. 연계는 현재 5개 단위가 참여하는 안암여학생연대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이를 통한 이때까지의 활동은 반성폭력학칙공청회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동명의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이다.

그리고 안암여학생회의에서는 단위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활동을 만들기도 하고, 각 단

위에서 사업을 할 때 지지방문형식으로 연대참여한다. 주요 이슈는 성폭력, 노동, 교육환경권이다.

이화의 경우는 여위, 공대 여성주의 소모임 전사, 사이버 여성주의 소모임 WILL, 사범대 특수교육과 우리여성 등이 있다.(여위에서 정확하게 학내 여성소모임/학회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성주의적 사회부 등 학생회 내에서 여성주의적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다. 전사와 WILL과 함께 이화여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이대포르노에 대해 공동영의 자보작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연동시키고 공동으로 인터넷상에서 토론장을 관리한다.

5) 활동가 선배들의 진로

고대의 경우에는 여위사람 중 여성운동으로 진로를 택한 사람은 없고, 전체적으로 여성학과 1명, 활동가 1명 정도이다. 선배의 수는 여위에 10명 정도가 있다. 이화여위의 경우에는 여성학과 2명, 활동가 4명 정도가 있다. 졸업하지 않은 선배까지 포함하면 8명 정도이다.

3. 여위조직체계의 내용

1) 내용적 측면

고대여위의 경우에는 총노선/기조에 의해 운영된다. 총노선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기조는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조직 운영의 면까지도 포괄한다. 그러나 이화여위의 경우에는 총노선을 설정하지 않으며, 사업에 따른 기조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다. 총노선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여위내 구성인자 사이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 활동-대중사업을 중심으로

고대여위는 여성문제에 대한 이슈를 학내 사안과 사회사안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한다. 학내사안은 교육환경권(여성학 강의 개설, 성폭력, 취업대책, 노동, 교실내 성차별, 학교시설의 문제-화장실, 휴게실, 생리대 자판기 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사회사안으로는 성노예문제, 노동, 성폭력, 미인대회 등의 사업을 정세분석 속에서 풀어낸다. 이화여위의 활동은 주제 중심이며, 성폭력, 노동, 성노예문제, 미인대회, 매매춘/기치촌 문제 등을 정세 속에서 풀어낸다. 두 단위 모두 일련의 싸이클이 형성되어있는 편이다. 고대 여위의 새터 사업, 출범식, 3·8 여노대회 참가, 메이데이 사업, 주제마당, 고대생집단 성폭력, 미인대회, 여론연, 여성 해방제, 선거, 이화여위의 새내기 맞이 사업, 페미니즘 문화제, 3·8 여노대회, 메이데이 사업, 대동제 사업, 고대생성폭력, 미인대회, 3차성정 발간, 선거기간 중의 활동, 기화, 방중 수요시위 참여 및 주관은 어느정도 고정된 사업들이다. 이 외에 학내 성폭력 사건이나, 연대 활동 등을 통한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한다.

3) 조직적 측면

고대는 대체로 세미나와 대중사업에 실천 단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여기서 세미나는 방중에 [여성문제연구회]라는 대중 세미나를 꾸리고, 여기에 30명 정도의 학우가 참여, 한반에 5-6인의 성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된다. 3주에 걸친 6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중간모임으로 한반에 참여한다거나 수요시위참여, 여러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친목도모를 하기도 한다. 세미나가 끝나고 총화모임에서는 세미나 평가, 이후계획, 친목도모를 한다. 현재 15기가 진행중이고, 이 사람들이 소모임을 만들거나 여위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여위산하 여성학학회 허스토리기가 있었으나 1년 정도 진행되다가 현재에는 해소되었다. 그리고 대중사업(주제마당, 여성해방제 등)에 신청서를 쓴 실천단이 참여하여 팀을 꾸려 각 판을 기획, 준비,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여론연을 마치고 관심이 지속되어 참여하는 경우와 순수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화여위의 경우는 비교적 인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여위 내의 인자로 총괄한다. 페미니즘 문화제 때 자활단을 모집하나 신입과 같은 위상이고, 새내기를 모집하는 기간은 9월 외에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open된 체계이므로 시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주로 자보를 통해서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운동주체를 형성시키는 방안으로는 신입세미나를 5차례 정도로 강화하여 진행하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마인드 강화를 모색한다. 그러나 이화여위는 활동가로 남기는 것 자체가 내부 운영체계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대와 다르다.

4) 내부운영체계

고대여위는 국별 체계로 위원장/정치사업국/대중사업국/조직국/사무국 등 기조에 따라 국이 편성된다. 각 국에서는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각 국의 활동은 1주일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화, 공유된다. 국의 활동은 안정적인 편이고, 구성인자가 적기 때문에 서로의 활동을 잘 아는 편이다. 대중사업시엔 실천단을 모으고 팀별로 진행된다. 한 팀은 3-4명 정도로 구성되고, 자료집은 여위내부에서 소화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사안별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사업은 기획안을 문서화하여 가져오면, 회의에서 내용 보충, 수정, 보완한다. 내부 세미나는 정기적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안마다 혹은 내부사람 1인이 제안할 때 시시때때로 진행하고 있다. 조직 평가는 학기말과 연말에 2차례 진행된다.

각 영역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은 총평가서(총론, 기조, 활동)를 작성하여, 다음해 인자와 함께 평가이월식으로 진행한다.

이대여위는 사업은 팀별로 진행한다. 팀은 사안 혹은 주제별로 꾸려지고, 필요에 따라 인원수가 정해진다. 팀간의 소통은 매주 1회 전체회의를 통해 소통되며, 회의에서는 보고 및 평가, 사업구상, 논의 등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신입세미나, 사안세미나, 학번세미나로 진행된다.

신입세미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여위의 체계와 여성운동사, 가족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학번세미나는 주제별로 진행되며, 고인의 수위와 효율성을 고려해 학번별로 진행한다. 사안세미나는 사업전, 관정을 명확히하고 기조를 정하고, 사업의 수위등을 논의한다. 전체 평가는 학기말에 학기 평가와 총회 이전에 대평가를 진행한다.

운영체계의 장단점을 보자면 고대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은 늘어나지만 인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중한 일의 처리가 문제된다. 때문에 내부에서 여위의 체계를 바꾸려는 논의가 있으며, 회원제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싸이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담아내는 사업들을 구상할 시간의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관성화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끝나는 점은 모든 회의가 문서화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해로의 이월이 용이하다. 이화의 경우에는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이고도, 주제 떠맡기기식이 되지 않기 위해 팀원들의 역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이 고학번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학번이 주체를 맡고 고학번이 도우미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자료-4]

행동위체계에 대한 인터뷰

-동덕여대 행동위원회

1. 여성운동에서 대학여성운동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이 가질 수 있는 진보성, 그리고 급진성들이 여성운동에도 있는 것 같다. 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이 국가 정책의 참여나 또는 법에 관련된 사항들에 개입하고, 여성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것들에 싸우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여학운은 지금의 가부장적인 문화들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특수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 행동위의 역사

동력은 여대이기 때문에 충여가 없다. 그러나 충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여성의 문제들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대에도 충여가 있어야 한다는 동력 내의 지나가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동력에서의 여성행동위의 건설은 대중적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97년 총학생회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이야기하며 여성, 교육, 환경을 운동의 중심축으로 삼는 단위가 있어야 하겠다는 고민에서 만들어졌다.(아마 주위에 여성주의자들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고민에서 프랑스의 대중 개개인의 자발적 봉기에 의해 이루어진 68혁명을 모범으로 삼아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모든 불평등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행동위원회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행동위를 만든 학생회의 주체들만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곧 순수한 행동위 라인을 통한 인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종속되지 않는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도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올해까지 행동위는 3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다.

3. 현재 조직의 위상은?

학칙상으로 행동위는 자치기구이다. 동력에서 자치기구란 학생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자치예산이 있고, 학생회로부터 지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칙이라는 것이 학생회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완전한(?) 안정적 여성운동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주체하는 행사나 활동들에 대중들이 무관심한 상황에서, 저예산 소수인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동력내에 여성운동을 하는 행동위라는 단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주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상태이고 주되게는 학내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인정 받게 되었다.

4. 학교상향 점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치권은 많이 침해 당하고 있다. 현재에는 학

생회를 통해 많은 투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동위는 그다지 학교당국에게 파워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요즘들어 예산의 비율이 늘어나거나 활동으로 알려짐으로서 그야말로 올바른 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모든 행동위, 즉 여성, 교육, 환경 행동위는 여성운동은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대 모임은 거의 없거나 아주 불안정하다. 여성운동 활동가 선배들은 셋 정도 두 명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5. 행동위 체계의 내용

내용적 측면에서 주되게는 반성폭력, 여성노동권을 큰 이슈로 잡고 있고 여성학 강의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슈는 다양한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지촌문제라든가 정신대 할머니의 얘기들은 잘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 주되게 총학 싸이를 내에 있는 대중제, 대중운동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들에 독자판을 파내서 활동하고 있다. 행동위 독자 사업은 예산이나 인자부족의 문제로 항상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조직적 측면에서 운동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항상 열려있는 구조이고 매년 학기초에 새내기 맞이 캠프같은 것을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안정적 재생산 체계는 캠프 형식 정도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행동위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의 안정적인 여성운동 인자로의 재생산 싸이클은 힘들 면이 있다.

대중사업을 진행할 때는 실천단을 모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선전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잘 모여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수인자가 죽어나는 형식으로 사업은 진행한다. 독자사업이 아닐 경우는 학생회와 같이 진행하여 예산이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자가 생기기도 한다.

6. 내부운영체계

*국별/팀별 체계

국체제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없다. 사업별 팀체제가 일반적인 형태였고, 활동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닥치는대로 일을

진행하거나 운영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사람이 워낙 없다보니 그냥 있는 사람이 얼굴마당하는 정도이고 설정된 체계로서 단위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 일년을 주기로 하는 싸이를 사업은 없다.

회의진행 및 의사결정, 집행은 기본적으로 고학번 주체가 먼저 고민하기는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및 집행은 모두가 합의된 상황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되지 않다보면 혼자 하기도 한다. 문제시되는 것들은 저학번과 정확하게 서로 상향 일정을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내부 세미나는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주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일정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두 활동에 치여서 대부분 겨울방학을 주된 세미나 시기로 잡고 있다. 특별한 방식은 없는 것 같다.

7. 내부 체계, 혹은 운영과정 평가

행동위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 아직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을만한 기반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는 조직 자체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평가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직내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단위에 대한 외부평가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만이 있다. 행동위는 자치예산을 받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년에 두 번 전학대회를 통해 사업을 보고하고 다음 학기의 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학생회의 의결과정이 있어야 한다.

8. 학생회와의 관계

학내에서 학생회와의 연대는 대중제같은 큰 학내 사업에서 연대사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주제에 따라서도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노동권에 관한 문제가 기존의 문제의식에 종속되는 것으로 사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성노동에 관한 것들은 정세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학생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 여성운동 단위와의 연대

성폭력 연대회의에 처음부터 결합하고 있었고, 살맛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 어느 운동이나 고립된 운동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성주의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하며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내 여성운동으로 매몰되면서, 특별한 학내사안의 투쟁만으로

여성운동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도되는 다양함들의 소통이나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운동 단위간의 연대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대형태에 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타운동단위와의 연대 역시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연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존중된다면 연대란 항상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조직으로서의 행동위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교육이나 환경적인 사안들에 민감하고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운동속에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운동의 소유개념 즉, 1인 1운동을 지양하며 모든 여성들은 물론이고 다른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성운동의 당위성을 알려내는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3. 현재 대학내 여성운동조직의 전반적인 분석

우선, 학내 자치운동중 여성운동이 환경, 교육운동등 보다 이슈화가 잘되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

위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대학내 여성운동 조직을 분석하여 보면,

3가지 체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 대중화의 문제:

- 학내 여성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우들의 관심정도가 총여,여위, 행동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작년 서울지역에서 총여선거시기 여성주의 선본 다수의 낙선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 대학내 학우들과의 피드백 관계를 긴밀히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 조직화의 문제:

- 기층단위들이 조밀하지 못하다. 또한, 기층단위와의 연대상황도 긴밀하지 못한 편이다.
- 활동가의 재생산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체로, 개인적 친분을 통해 재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 내용적 측면:

- 대체로 성폭력, 노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룸을 알 수 있다. 학내사안으로는 복지의 문제(교육환경권)와 학교특성에 따른 고유의 문제들,

• 국별·팀별체계의 존재:

- 인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여성운동의 상황에서, 사업진행·내부운영에서 국별체계와 팀별체계가 존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 재정상황:

행동위를 제외한 총여학생회, 위원회 체계의 경우, 재정이 비슷하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운동 단위의 물질적 기반인 재정, 공간의 문제가 비교적 안정화단계로 들어섰다고 볼수 있다.

각 조직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학교당국과의 협상력 : 총여·여위·행동위 체계를 비교할 때, 총여의 학교당국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우 발언력 : 총여의 경우, 직선체계라는 대표성을 통해 학생회에 대한 발언력, 학우들에 대한 발언력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장점 끌어내기:

총여의 학교당국과의 협상력.

여위,행동위체계의 상대적 자율성.

단점 보완하기:

안정적 재생산의 기제를 찾자.

[조직팀 참고자료]

연대모임의 조직에 대한 간단한 글 한편

00.

작년 한판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판에서 여성주의 조직론은 또 다시 토론거리로 등장하였다. 이는 여성주의자들의 여성주의 조직론에 대한 욕구를 반증하는 일이겠지만, 작년 한판과 마찬가지로 조직론을 다룬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어찌되었든 조직론을 같이 고민하기로 한 몇몇의 여성주의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앉아 고민을 열라 하였는데, 그나마 작년과 차별성있게 꾸려갈 수 있는 지점으로 잡았던 것은 조직론' 바라보는 입장과 내부 운영체계 부분을 주되게 다루는 것이었다.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의미는 이전의 총여학생회·여위 논쟁을 떠나 각각의 조직의 유의미성을 판단하고, 여성주의에게 장래로 다가오는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 견어낼 수 있는가로 고민의 틀을 옮겼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직론에 대한 판의 부분은, 발제문을 보면 알겠지만, 조직자체와 내부운영체계,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조직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전술의 부분이며, 내부 운영체계는 따로 팀을 잡아 후술된 부분이다.

이렇게 전체 팀에 대해서 다시 서술하는 것은 연대모임의 조직에 대한 팀을 참고자료로 놓아둔 것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원래 조직자체에 대한 팀에서는 각각의 조직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성행동위원회, 연대모임-에 대하여 건설배경, 현재의 상황 및 조직의 유의미성과 장애요인을 판단하고 여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각 조직별로 전략을 서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대모임인 경우 다른 여성운동 단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유의미성과 장애요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연대모임의 특정상 건설배경에 대한 판단이 세밀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연대모임의 조직자체가 여성주의 내부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바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조직의 상이나 상황이 차이가 많아서 총여학생회나 여위, 행동위와 달리 조직팀에서 설정한 팀으로 서술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연대모임은 이렇게 참고자료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내년 한판에서 이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참고자료로 들어간 연대모임 팀을 위로 한다.

0.

여성주의 안에서 언제나 연대에 대한 고민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은 여성주의를 커다랗게 묶을 수 있는 말 중에 자치, 차이(다양성), 연대이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여성주의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96년도 이래로 여성주의 안에서 연대모임은 무려 11개나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나 타운동과의 연대의 문제가 여성주의 내부에서 얹는 이라는 사실은 여성주의 안에서 연대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연대는 여성운동 안에서의 연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운동세력과

의 연대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론에 대한 팀에서는 연대라는 커다란 문제의식에 버거워 하며 많은 부분을 잘라내기로 하고 대학 내 여성운동 간의 연대로 축소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글은 현재 대학 내 여성운동 안에서의 연대 모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 간 연대체보다는 학내에서 건설된 여성모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학내에서 여성단위들의 연대모임을 굴렸거나 굴리고 있는 곳은 관악여성모임연대, 고대 아남 여학생 연대회의, 연대 여성자치연합 및 여성자치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96년정도부터 연대모임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모임의 활동을 진행해온 단위인 관악과 연대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를 표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연대모임의 건설배경논의는 주로 96년 당시, 즉 대안운동 및 이즘으로서의 여성주의가 등장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당시에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내 연대모임의 건설 배경과 건설 당시 문제의식을 주로 서술할 것이다. 이것을 주되게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연대모임 건설의 문제의식이 여성주의적 권력구조 혹은 여성적 조직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현재 우리가 끌어내어야 할 여성주의적 조직에 대한 상까지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자체적 한계) 그러나 96-7년 당시 여성주의 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주의적 권력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1. 연대모임의 건설배경

대부분 단대별 혹은 과별로 자체의 활동·자체 세미나에서 부터 자신의 공간 속에서 사업을 펼치는 다양한 수위의 활동을 가진 여러 개의 여성모임들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모임이 시작되었다.

학내 여성단위들의 연대모임이 처음 생겼던 곳은 관악이다. 관악은 93년 신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 꾸려졌던 신교수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존의 여성운동진영에서

제기되기 보다는 학생회 인자들 중심으로 꾸려졌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에 기반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교수 사건은 학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커다란 사건이었고, 그 이후 96년이 되어서야 그러한 고민들이 실물화되었다. 각 단대별로 94년 신교수 사건이 공론화된 학내 상황을 경험했던 3학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모임이 꾸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96년 상반기 동안 이들의 활동은 주로 단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관악여성모임연대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농촌현장활동이었다. 단대별로 여농반을 준비하던 이들, 여성모임의 인자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여모 대표자 모임을 한 시적으로 꾸렸으며 이것이 지속적인 테이블로 안착화된 것이 바로 관악여성모임연대(추)였다. 여기서 관악 전체 차원의 여성운동이 고민되었으며, 관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운동은 대부분 관악여성모임연대의 활동으로 포괄되었다.

연대는 95년 성정치 문화제 이후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고민은 각 단대별로 여성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실물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은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운동과 괴리되어 96년 9대 총여학생회 이후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 당시 가장 자기 활동이 확실했던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에서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대신 선거기간동안 일상/자치/저항문화 라는 문화제를 통해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체를 단대별로 흩어지려는 여성모임들에게 제안하였다. 그 후 97년 총여학생회의 공백 속에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체인 여성자치연합 이 발족하였으며 전체 연대를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의 활동이 이로 인해 확실히 보여졌다.

고대는 관악과 연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대의 상황은 전체 고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위의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경험했던 인자들이 단대를 기반으로 한 여성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단위 여학생회-법대 여학생회-가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펼쳐내고 있다.

여기서 고대의 연대모임은 전체 고대를 대상으로 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각 여성모임간의 소통구조의 확립을 위해 요구되었던 것이 더 컸으며, 이후 고대 연대모임의 활동은 이러한 제기 배경과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연대모임은 우선 독자적인 여성운동이 제기되고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성모임들 간의 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산발적인 여성운동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연대모임 건설의 가장 커다란 배경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여성운동의 구심점으로 총여학생회, 여위 등의 조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대모임을 선택했던 것일까? 단지 학내에 여러 개의 여성모임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아니다. 이들이 연대모임을 선택한 것은 여성주의적 관점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2. 왜 연대적인가?

다시 의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이들은 여성운동을 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란 안정된 공간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왜 이들은 여성모임연대 혹은 여성자치연합 등의 연대체를 고민하게 되었던 걸까? 연대체를 고민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차이나는 주체 혹은 단위들의 연대. 이것이 여성주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실했던 까닭은 당사가 여성주의를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96년이 었다는 것이 가장 크다. 독자적인 여성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여성주의의 전선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그 속에서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고 고민해야만 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연대체 선택의 이론적인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2-1. 남성적인 조직·단위성에 대한 거부.

.....학생으로서의 삶, 남/여로서의 삶, 이성애/동성애자로서의 삶,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복학생으로서의 삶 등.....우리가 저항적인 주체화 과정을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지배적인 규정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학생들을 단일한 존재로 묶어 놓는다.

.....우리는 90년대 주체화 과정을 왜 이야기하는가?, 학생회 개혁 포럼 연구팀, 97년 1월 여성주의는 단일성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했다. 단일성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권력구조의 중심이며, 여성독자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담론-노동, 민족의 모습이며,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논리이다. 가부장적, 남성적 구조는 근대적 핵가족 구성의 모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근대 가족은 성인 남성인 가장이 한 가족단위의 부양을 책임지고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피부양자로서 위치지어지면서 가장에 대한 복종 의무를 갖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생산/재생산, 공/사의 철저한 이분화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분역의 형태는 성역할의 규정과 학습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족 안에서는 생산을 책임지는 가장만이 경제권과 결정권을 장악하므로 가족구조는 철저하게 수직적이다. 이러한 근대 핵가족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부장적이며 남성적인 구조는 사회 및 국가 구조에까지 확장된다. 공/사=정치/비정치=남/여=우등/열등의 이분법 속에서 생성되는 주체는 이러한 역할 속에서 단일하며, 단일한 주체는 이러한 이분법을 유지한다.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거대담론을 움켜쥐며 한 길 달려왔다. 학생은 예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 혹은 분단된 조국을 살고 있는 애국청년으로만 호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등 주체 혹은 영역운동은 배제의 대상 혹은 중심에 복무할 수 있는 주변부 운동이었다.

여성주의는 여성으로서 억압에 대한 경험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여성모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단일한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모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으로 인해 주체화 되는 다양한 주체를 인정한다.

가부장제가 우리를 획일성으로 구속한다면, 우리는 다양성으로 맞서리라

· 제1회 여성제 자료집 서문 중, 연대 여성자치연합, 97년 3월

그리고 운동과 변화를 위한 다양성들의, 차이들의 연대를 바라본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얼마전 별기에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30만명이 거리에 나섰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했으며,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시위에 동참한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대적인 연대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이다.....

-우리는 90년대 주체화 과정을 왜 이야기하는가?, 학생회 개혁 포럼 연구팀, 97년 1월

학내 연대체에 대한 고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반이 다른 여성모임들이 존재해야 하는 한 것이다. 이렇듯 다른 공간에서 일정부분은 차이가 기대되어지는 여성모임들에게 구심점이 필요할 때,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은 그 구심점을 단일한 중심으로 환원시키지 않았다. 여성주의자들은 다양성의 구심점을 고민했던 것이며, 그러므로 연대체를 선택한 것이다.

2.2. 반여성주의적인 대의제 질서=반여성주의적인 총여학생회 질서

첫째, 대의제의 한계성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가 바로 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바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내에서 자리잡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주의적인 학생회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의 모든 정치성은 학생회로 집중되며, 다수의 학우들은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일반학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매년 선거가 치러지면서 학생회라는 틀을 채우는 내용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국가란 바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회 체제도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비속적인 분할은 가부장제가 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부르주아적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분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학생회는 항상 공적인 영역이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항상 공과 상의 이분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에 무관심 내지는 무능력하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논리이다. 남학우들이 의도적으로 여학우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학우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사의 이분화,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에 입각한 권력구조 그 자체에서 여학우들은 밀려나는 것이다. (대안권력, 일상/자치/저항문화 자료집, 96년)

.....또한 대의제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고하는 실질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포함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학생회 중심의 학생 자치 질서에서 우리는 또한 학생회라는 형식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풀찬치 자료집, 판악여성연대모임, 97년)

여성주의자들은 학생회질서의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지점들의 근본을 대의제에서 찾았다. 앞서 2-1에서 언급했듯이 근대에 이르러서 체계를 갖춘 가부장제는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틀의 중추였다. 근대국가는 핵가족제를 기반으로 확립되고, 대의제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유지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는 가부장적인 위계와 공/사, 정치/비정치의 이분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원천적으로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대의제로 유지되고 있는 학생회 체계 또한 그러한 대의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사적/비정치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여학생들은 그 자체로 학생회 질서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을뿐더러 대의제 질서 하에서 대중들의 자발성과 정치성들은 탈각될 수 밖에 없다.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여성주의와 공존할 수 없으며, 여성운동을 펼칠 때에 장애요인일 뿐이다. 그러하므로 결국 여성주의자들은 학생회 질서를 외곽에서 공격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대의제로 유지되는 총여학생회

그렇다면 학생회 질서에 속하여 있으나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총여학생회란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 연대모임을 고민했던 여성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

답하였다.

우리가 댄처를 모았을 때 우리는 여성모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총여학생회를 사고했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들만의 권력이며 여성복지를 담당하며, 여성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이다..... 그러나 총여가 단순히 여학생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고민되는 것이라면, 지금의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의 유포이다(실질적인 변화로 서의 담론의 유포) 그런데 여학생들에게조차도 담론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그들에서 한 번의 표적기로 권한을 이행받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물론 여학생을 대표한다는 것의 유의미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여학생을 단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넘어 그들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정치화시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모이게 하는 것이다. (물간지 자료집, 판악여성연대모임, 97년)

여성주의적인 담론의 정치를 펼쳐내는 공간으로 총여학생회는 적당한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대의제의 한계를 총여학생회는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총여학생회 질서에 편입한다고 해도 정치/비정치의 이분법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였다. 게다가 여성억압의 일상성과 여성주의의 일상의 정치화는 총여학생회 질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총여학생회에게는 이러한 일상과 정치의 이분화 속에서 더욱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문제란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표 행위를 거치면 서 이러한 일상의 문제는 걸러지고, 한 장의 투표로 모든 정치적 행위가 끝나게 되는, 부르주아적 정치관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그러한 학생회 선거는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나 중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학우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대표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구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연세여성자치연합 제안서)

물론 학내 전체 여학우의 대표체인 총여학생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주의자들이 중심이나 대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나 중심의 설정이 유동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그 외의 수많은 이들의 자발성을 탈각시키는 가능성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학생회(대의제)질서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은 정말로 충분히 반여성적인 것이었다.

2.3. 여성주의적 연대질서

여성주의가 다양성들의 연대로 고도로 추상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제기하고 실물화시켜야 되는 상태에서 그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분명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대로 드러났으며, 여성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표출되었다.

여성모임들이 모여 구성하는 연대질서가 총여의 해체를 의미하거나 총여의 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성자치연합은 누군가가 학우들 위에 조직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바로 아래에서부터, 학우들 사이사이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자발적인 주체성에 의한 내뿜음으로 발현되고 지켜내는 연대의 정치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그만큼의 대중성도 지닌다는 전제가 아닌, 여성들의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반위계적인 모든 목소리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조직화를 의미 하기도 합니다. 각 조직의 특수성을 살리고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장하면서 학내에서, 또는 더 넓게 사회에서, 여성에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나 투쟁적 실천으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서부터 여대생의 취직문제까지, 다양한 수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의 조직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대중 스스로가 행동 하고 어느 상위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일 것입니다. (연세여성자치연합 제안서)

그 당시 발착하기 시작했던 여성모임들의 연대체는 단순한 여성운동들의 소통이나 공유를 위한 장이 아니었으며, 여성주의적 권력구조를 실험하기 위한 장이었고, 자발적인 다양성의 연대의 효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심점의 실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연대체를 선택한 것이다.

3. 현재

여지껏 학내 여성단위들의 연대 모임의 건설배경과 그 문제의식을 미흡하나마 살펴보았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처음 실물화되었던 96년도의 고민들이었다는 것이며, 주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연대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연대체를 선택했던 배경에 깔린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다. 언제나 여성주의를 설명할 단어가 없어 고민하는 여성운동의 주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호명하는 주체들 사이의 괴리는 여성주의 안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성주의 전반이라기 보다는 여성적 조직 혹은 여성주의적 권력 체계와 관련된 처음의 문제의식이지만, 여성주의를 현재까지도 실물화시키려고 노력되어온 부분이 이러한 여성주의적 조직론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하기에 일정 정도 조직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여성주의를 풀어낼 수 있는 껍리를 찾아 보아야 한다.

여성주의적 권력 구조 혹은 여성적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치, 차이, 연대의 세 축을 실물화시켜보기 위한 여성모임 혹은 여성들 간의 연대체 건설로 96-7년 당시에 고민되었다. 현재 관악, 연대 모두 그 당시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후설되고 있는 내부운영체계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 모색.

손안지연(4대 이화 여성위원회)

1. 기간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 실태 평가

기간 활동평가는 대학 98년 한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즉, 98년 6월 말 여노대련 발족 이후의 학내 여운단위의 활동이 평가대상이 될 것이며 발제문의 문제제기에 유의미한 여노대련이 중심 평가 사안이 될 것이다.

여노대련을 중심으로

98년 6월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노대련)의 발족은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간의 대학내 여성운동 속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오지 못했고 그와 관련된 지속적 활동들이 풀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98년 여노대련의 결성은 여성운동 단위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것이었다.

98년 여노대련의 결성은 정세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97년 말 IMF라는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노동자 죽이기 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가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1차적인 희생자로 내몰려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몰릴 자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여성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화 여위 연대 총여 등 7개 단위가 모여 연대의 흐름 속에서 문제제기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여노대련을 결성하였다.

여노대련의 결성은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의 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 즉, 재생산 노동부터 시작하여 비가시화되고 폄하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을 재가치화 하고 노동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여성노동의 문제를 단순히 거대한 노동운동의 흐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으로 노동을 재개념화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체계모니를 위한 전제였다.

노동의 여성주의적 재개념화라는 커다란 기치아래 여노대련은 대학 내에서 신규여성실업문제 중심으로 활동을 가져나가기로 했다. 이후 여노대련은 98년 7월 민우회에서 준비했던 여대생 예비취업 캠프의 총화 집회, 그리고 98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과 여성실업대책 촉구대회 주최 등의 활동을 가져나

갔다. 그러나 사실상 여노대련은 여성노동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연대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가져나가지는 못했으며 99년 초에 잠정적 휴지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해소 상태이다. 해소되기까지 여노대련의 미진한 활동, 그리고 해소는 물론, 여성운동단위에서 내세우는 연대체라는 위상의 모호함, 여노대련에 참가하는 단위의 켜 내에서의 상황들이 연대체의 흐름을 가지기 힘들게 함 등의 원인들이 존재했었지만 대학 내 여운단위가 여성노동담론에 있어 명확한 관점과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가졌던 혼란들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여성노동의 문제는 대학내 여운단위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던 것이다. 대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노동자라는 정체성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들, 차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과의 연대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운동에 있어서 방식, 집회, 문선 등에서 여성주의적인 방식들은 무엇인가 등은 여성운동단위에게 새롭게 던져진 문제였다. 그리고 과연, 여성노동운동의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점 역시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었다. 초기에 여노대련에서 이야기 했던 것들, 즉, 재생산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제기하면서 노동에 대한 개념부터 재구성해나가기라는 것들은 단순히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민중'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여성주의적인 노동'을 이야기함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의 발전, 재구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 방법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시적인 틀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문제들은 여노대련의 해체 이후에도 명확한 결론이나 진전이 크게 없었다고 생각된다. 여노대련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흐름들을 만들어내었다.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그리고 군가산제 관련 집회, 그리고 몇 개 대학의 단위가 함께 고민하고 활동있는 모임인 '여성노동'까지 여성노동에 대한 나름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기간의 활동의 평가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수면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한 지속적인 여성노동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내 여성노동운동에 있어서 및 가지 지닌 고민들.

기간에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노동에 있어 여성주의적인 재담론화,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의 노동은 시장 밖에서, 가사노동, 재생산 노동 등의 이름으로 더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들은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지우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노동에 대한 억압들, 그리고 그 속에서 평가받기도 전에 비가시화되는 여성 노동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전략들과 맞물리며 풀려야 할 것이다.

2-1.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노동이라는 사안으로 이야기함에 있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했던 것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이다. 대학사회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 우리가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선택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체성과 대학인의 정체성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존의 학생운동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노학연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노동,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먼저 느끼는 학우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노동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포지션을 전략화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기간에 노동문제에 있어 우리가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그러한 결론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문제로 정책화 시킬 수 있으며 여대생의 문제로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대중들에게 노동이라는 담론을 좀 더 유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여성실업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의 문제를 확장시켜나가기 할 것이다.

대학 사회를 돌아보면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이전에 해야 할 다양한 환상들이 존재한다. 대학, 그리고 매체에서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심어주는 전문직 여성, 커리어 우먼식의 환상들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여대생은 노동의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직 여성만을 고민하거나 3.4 학년이 되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먹고살기 전략화 - 외모가꾸기, 학점 따기 등에 치중하는 식의 -가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성이라는 정체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억압이 되며 노동에서 소외되는지를 목소리를 내야 한다.

2-2.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노동이라는 사안에 있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은 사회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기존의 좌파세력의 노동운동과의 연대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때로는 전략적 연대를, 때로는 독자적 세력화를 구체적인 논의와 결론없이 운동들이 진행되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간에 거대담론으로서 존재했던 노동운동은 우리에게 물론 많은 노하우와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사안별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다. 노동이라는

담론에 있어 기존 학생운동단위, 노동운동단위들과 연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찝찝함이 나 고민들은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인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기간의 노동운동의 담론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이 과연 포함되어 있었는가 - 물론 전략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문

제를 제기하거나 여성노동자를 '포섭'했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다. -를 사고 한다면 다소 비판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안별로 유효한 연대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노동의 개념부터 여성주의적으로 재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의 비가시화된 노동을 드러내는 것은 기존의 노동운동 속에 여성의 목소리를 조금씩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서 가능하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그 논의 속에 그들을 포섭시키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학 여성운동단위의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각 캠퍼스 노동사안에 대한 여운단위의 민감성들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노동운동의 현실화를 위한 연대의 흐름으로.

3-1. 대학 내 여운단위의 연대의 흐름을 위하여.

여노대련의 해체이후 사안별 연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모임의 형태로 캠퍼스가 소통을 지속하고자 하긴 하지만 노동의 문제는 대학 내 여성노동 단위의 적극적인 방식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문제가 적극적인 조직화, 그리고 적극적인 대사회 투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연대의 문제는 시급하며 여성노동단위가 노동이라는 사안에 있어 한 목소리로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 흐름이다. 게다가 여성노동이라는 사안이 파편화되며 노동운동의 거대담론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여성노동의 담론을 사회적으로 적어도 대학사회만이라도 확장하고 노동담론의 틀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에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의 활동은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운단위가 함께 모여 노동의 사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메이데이라는 거대노동운동의 틀거리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여성노동운동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안별 연대와 연대 흐름의 해소는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기간에 여노대련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끝을 맺었음을 생각할 때, 설부튼 연대체의 건설은 물론 많은 회의지점들을 낳을 것임에도 연대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 그리고 사안에 대한 긴급한 조직력과 투쟁의 흐름, 그리고 사회 단체와의 연대의 끈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대체가 필요하며 그 연대체를 시발점으로 여성노동운동의 목소리를 타 운동단위에게까지 제기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체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한 흐름이 학내에서 대중화되기보다는 운동단위인자들 중심으로만 고민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연대 이전에 캠퍼스에서 노동이라는 사안을 유효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3-2.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흐름.

기간 활동 속에서 우리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노대련 활동 속에서 한여노협, 양대노총과 함께 연대를 했던 것은 우리의 문제제기를 대학 사회 외부로 좀 더 유효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그리고 각기 차별성을 지닌 단위들이 여성노동의 문제를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제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여노대련에게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경험을 축적시켜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여노대련 활동 이후에도 롯데호텔 일용직 여성노동자 문제, 군가산제 등학단위는 시안에 따라 한여노협,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단체와 소극적, 적극적 연대를 가져나왔다.

사회단체와의 연대는 대학 사회 외부로 우리의 목소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연대의 경험을 통해 학단위에서 풀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여성노동의 문제를 이야기 함에 있어 신규여성실업을 학내에서 제기한다고 할 때,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성차별적 사례들을 놓치기가 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의 관계는 우리의 흐름과 목소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회단체와의 연대는 물대주기식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속적인 연대, 그리고 함께 논의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대학 내에서의 흐름 만들어내기

기간의 활동에 있어 평가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대학 내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조직화 되기가 힘들었던 점이다. 물론 대학 내에서의 조직화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학생운동 내에서의 노동담론과 맞물리는 지점, 그리고 학생회 라인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직화를 하기에 불리한 여성운동단위의 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에 노동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만으로 대학 내 흐름을 만드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의 흐름에서 대학 내에서 대중화보다 운동가들의 운동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대학 사회에서의 확장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다. 더 이상 운동가 중심의 운동,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하고 선언적인 자료들로 채우는 캠페인 운동만으로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우들과의 괴리감을 위해서는 터부시되는 노동이라는 담론을 선언적으로 제기하기 이전에 학우들의 고민을 함께 가져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보, 집회 등의 선언적이고도 학우들이 참여하기 힘든 사업에서 벗어나 노동이라는 담론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학우들이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의 지점들을 끌어내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그 작업들 속에서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여성노동운동의 전략적 모색을 위하여

● 7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쏜근바아 ●

1. 왜 우리는 여성노동 을 당혹스러이는가?

IMF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더욱더 주변화되고 있다. 대학여성운동(이하 학여운) 단위에서도 이러한 정세속에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 계속 거론되고는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 운동의 필요성, 당위성과는 별개로 현재 활동하는 이들에게 여성노동이라는 담론은 왠지 당혹스러운 상대다. 이 당혹스러움의 정체가 학여운 내부에 여성노동 담론이 부재했기 때문은 아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여성단체와의 집회를 통해서, 가까운 예를 들자면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왠지 껄림칙하고, 낯설고 느끼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에 의한 구조화 작업없이, 여성노동은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성담론이 성폭력을 이슈로 여성주의적 인 내용과 전략들을 제출하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여성노동의 문제는 사회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주공간 안에서 여성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방법론은 부재했던 것 같다.

잠시, 조금만 더 그 당혹스러움의 정체를 밝혀보자면, 우선 주지하다시피 노동 운동과 여성노동 운동과의 차이를 언급해야 할 것 같지만 여기서 그 치열했던 성계급전쟁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소모전일 듯 싶어, 반자본 투쟁만으로 여성노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당혹스러움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즉, 여성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류(남성중심의) 노동 운동의 담론, 전략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공공연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린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계, 이것이 현재 대학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2. 고대에서 여성노동운동

4대 여위에서 현 7대 여위까지 고대에서 여성노동운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활동력은 상당하다. 이는 고대여위의 총노선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며, 여전히 노동중심의 학생운동이 유효한 학내 정세에서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기간의 고대여위의 여성노동의 담론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분업 타파를 중심으로한 문제의식 제출

둘째,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이슈 제출

셋째, 독자세력으로서의 운동의 방법과 전략모색

이러한 단계는 흔히 대중판이라고 말하는 내부의 담론이 외화되었을 때의 주요이슈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단계가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단계의 이슈는 하나의 단계 안에서 매우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독자적인 운동세력으로서의 전략을 모색하는 현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독자세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별분업, 가족임금제와 같은 이데올로기 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문제의식 설정,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 제기, 그에 따른 방법론 모색이라는 진행과정은 어느정도의 일반성과 필연성을 갖는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여성운동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지점은 단계로의 이행과정이 각각의 이슈가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들을 무시한 채, 단절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진행되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5대 여위까지 여성노동이 처한 특수성, 즉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 호주제 등의 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이후 6대 여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 및 담론의 지형이 독자적인 정치적 집단의 목소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집단으로서의 형태, 즉 여성주의적 집단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더 급진적인 문제의식은 생략되었던 것 같다.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자기규정은 기존 학내 정치집단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학생회, 학생운동의 모습이 되었다.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전면에 내건 6대 여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조직화였다. 그 첫 번째 조직화의 형태는 흩어져 있는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조직화였고, 이는 안암여학생연대회의 (이하 안여연)라는 조직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학기 동안, 7대 여위에서는 안여연을 중심으로 3.8에서 메이데이까지 꾸준히 여성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조직중심의 정치적인 접근이 되어버림으로써 대중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성운동조직의 생성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학내에서 (여성)운동단위로서의 기본적인 세·실제로, 헤게모니란 세싸움이 아니던가, 안정적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7대 여위가 내용적인 기초로 삼은 것은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정세적이고, 대학 여성운동 내외부의 상황적인 요인으로 1학기 대부분이 여성노동운동으로 점철되었다. 매년 3.8 여성대회에 여위와 관심있는 주변인들이 참여 하였던 것에 반해, 올해의 경우, 정세적인 이유로, 학기초라는 시기적 상황으로 3.8을 통해서 여성노동운동의 첫 발걸음을 깊이 새기고자 했던 우리는 B4 짜리 자보로 각 건물 의 여자화장실, 각 과실을 도배하는 선전역량을 보였고, 70여명이 참여하는 교양학교와 450명이 3.8대회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예상인원을 많아야 30명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므로 이는 아주 대단한 선전이었다. 3.8의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의 참여는 안여연의 조직적인 힘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4월 초의 열음마당(해오름제)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단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제 여성운동을 말하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힘 있는 발언을 하기위해 시위집회 전을 준비하였다. 이전에도 5월 이대대동제를 기해 이러한 선전전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선전전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지 않는 여성 각각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발언들이 시위로, 좀더 활기차고 재밌는, 이때 기초가 최대한 화려하고, 시끄럽고, 흥겹게 엮어 이미지를 시위로 만들고자 했다. 실제로는 어떤 기념비적인 형태로 성공적인 마감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능성을 제시한 좋은 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위내부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개입되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다. 정치적이며 완고한 운동에 대한 고집은 쉽게 대중추수주의, 기회주의, 타협을 배격하면서 독단적인 좌경화의 길을 걸을 우려가 크다. 열음마당 전체판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학우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학우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게 내부에서 거론되었다는 점,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온 집회의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로 드러났던 점을 열음마당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이 성과가 이후 활동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후 우리는 여성노동권 확보, 학내 여성의 교육환경권 확보를 이슈로 4.18에서 메이데이로 활동을 진행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활동이라기 보다는 4.18이라는 중요한 학내사업에 어떻게 여성운동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1학기 노동판 중에서 가장 큰 4.30/메이데이 에 여성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속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미 내부에서는 어느정도 학생회 안에서의 발언보다는 안여연을 통한 독자적인 발언쪽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안암여학생연대회의 공동참가단이라는 깃발을 들고, 4.18에서부터 메이데이까지 여성노동의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공동 교양학교, 시위집회, 단위별 선전전, 4.18/메이데이 참여로 구성되었다. 1학기의 반을 퍼부으면서 가장 큰 사업이 되었던 4.18에서 메이데이로 는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활동의 획을 그었던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결국에는 조직중심의 활동으로 귀결되면서 대중운동으로서의 대중담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1학기를 뒤돌아보면서, 여성주의적인 여성노동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다. 학운의 노동운동의 방법과 전략들을 다시금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하지 않는가, 노동담론의 특성상 조직화와 세력화의 필요성이 유효한 것인지

가,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담론의 대중화와 반비례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각 단계의 목적을 분명히하면서 이전 단계 담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하나마, 여성노동운동의 총체적인 담론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앞선 질문들을 포섭하면서 여성노동운동의 전략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3. 여성노동 담론화

3.1 여성노동 말만들기의 전략적 의미

이들테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강간과 동일시하는 통념에 도전하면서 계속 그 의미를 확장하였던 것은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자,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듯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전략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지점이다. 특히나 여성노동은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남한사회 노동운동의 담론들과의 차별성으로 인해서 더더욱 말만들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3.2 여성노동 개념확장

엄마는 뭐하세요라는 질문에 집에서 놀아요 라는 답변이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의 80%가 넘는다.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노동의 문제는 성별분업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가족의 일이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성이 하는일의 많은 부분이 가족을 위한 재생산 활동(가사노동)이거나 집안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노동(무급 가족 노동, 가내노동), 또는 시장에서 팔 목적이 나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생계 유지 생산 노동)인데, 이러한 일들은 집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학강의』 중 10 장 현대사회와 여성의 일 이것은 쉽게 일반화되어 여성을 일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현재 공적부분에 진출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노동자들을 해고,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상황에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가족의 일(가사노동, 무급 가족노동 등등)을 포함하는 노동의 개념화이고 둘째, 현재 (공적영역에 있는) 탄압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이다.

그러나, 기간 우리의 담론은 두 마리 토끼를 개별영역에서 사냥하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적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만을 여성노동자 라고 말한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이 빚어졌다. 경험에 의하면 여성노동과 관련한 대자보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라는 카피의 근거는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이 아니라 언제나 공적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물론 사적영역의 노동과 공적영역의 노동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공적영역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언급은 자체 사적영역에서의 여성노동이 가지는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에 사적영역의 성노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간 우리의 담론은 충분히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고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성노동을 억압하

고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적영역의 여성노동(가사노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부여, 제도적인 노력들은 부재했다. 물론, 가사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렇다고 막연히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스럽다. 그것이 일반대중 그리고 활동가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긴박한 여성노동운동의 피해자로 공적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공적영역만을 상정한 여성노동의 담론화는 그 자체의 자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공사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나가면서 동시에 여성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노동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고, 그나마 진보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3.3 말 만들기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은 표현이다. 그러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합의 이후에 거쳐야 할 작업은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상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 표현에 있어서의 정치적이고 지적인 과격성을 제한하는 것,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이다.

성폭력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했던 전략은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언어선택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이라는 담론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험적인 언어, 그것이 바로 성폭력 담론이 계속적으로 학여운에서 유효한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동에 있어서도 삶의 이야기로, 여성의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유효하며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엘리트 의식과 체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리감(안이함)으로 노동을 체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아니라는 한계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메이데이에 신규여성실업문제를 이슈로 잡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분홍빛 환상은 신규여성실업의 문제까지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접근방법을 미래의 어느시간에 우리가 체험할 것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후 과정까지도 연관가능한 화두를 제안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다면, 가사노동의 이슈화를 통해서 여성노동전반에 대한 접근과 정세가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3.4 말 퍼뜨리기

말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뜨리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말 퍼뜨리기는 주로 대중판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말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지점에 착목할 것과 이벤트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고대에서는 스물의 희망, 스물넷의 절망이라는 노동주제마당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이 가내하청노동- 구슬 꿰기 체험판이었다. 직접 구슬 꿰기를 체험해보고, 가내하청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예시를 통해서(등록금을 벌려면 바느질을 233 일이나 해야한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었다. 특히 등록금, 게스청바지, 맥도널드 햄버거를 예시로 들었던 것은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3-5. 말을 힘으로

이 지점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 라는 말이 제기된다. 담론을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확보하는 것을 너무 비인간적인 작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특히, 여성노동운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1 학기 여위의 활동을 서술하였을 때 언급하였다시피, 고대에서 안어연이라는 연대체의 형성으로 우리는 독자적인 활동과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다.

말을 힘으로 만드는 것은 비단 활동가들의 조직화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공감가능한 대중의 폭을 확장하는 말만들기의 단계를 거쳐, 그것을 힘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서명운동과 같은 방식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말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일정정도의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산출되었을 때 이전 단계에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냥 한때 부풀었던 거품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달성가능한 목표, 이를테면 학내에서 여성취업전문대책반을 만든다든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업서를 보내서 시정을 이루어낸다든지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4. 마지막

빈약한 고민과 말습어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여성주의적 여성노동운동이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 어떤 대답도 되지 못한 것도 같다. 실제로, 여성주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파쇼와 같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여성주의란 꿈보따리 같은 것이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며,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여성주의적 여성노동운동 또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개인적인 고민들을 제시한 글에 지나지 않지만 다시 재구성되어야 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주의 바이러스로 한국 가부장사회를 감염시켜라!!!

여성주의
감염
노하우

여성주의
문화
위한

'99 여성연대한판

“공동체프로그램”

◆준비: 공동체 프로그램 준비팀

(난장, 인순, 어린, 설아, 마녀, 오이, 달리, 모비, 까망)

◆받습니다: 여성연대 한판 참가자인 누구나

1. 여성연대 한판 속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의 배치

여성연대 한판은 90년대 여성운동의 흐름의 연관 속에서 새천년을 열어갈 여성주의적 전략을 구성해내고 새롭게 실천해나가는 자리 라고 할수 있다. 이 내에서 여성주의의 문화를 논의 한 틀으로 제기하고, 머리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은 담론형성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여성으로서 체득되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억압적 질서를 깨기 위한 대안들을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풀어내보자는 의미일 것이다.

여성주의 질서라는 모호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기간 일상속에서, 끊임없이 여성주의적 문화, 방식에 대해 실험하고 고민해왔고, 이것은 여성운동이론의 궤적을 훑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여성 문화는 치자와 피치자를 나누지도, 획일적으로 중심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양성과, 차이와 사적인 경험의 무궁무진 한 상상력...

여성연대 한판속에서 여성공동체의 현실화를, 그리고 여성문화를 통한 여성운동 주체 형성의 실험들을 마음껏 구성해보자.

2. 구체 기획안

공동체 프로그램은 첫날과 둘째날에 나누어 진행하며, 첫날 프로그램은 여성연대 한판을 여는 판구성과 함께 참가자 소개 프로그램과 친해지기 마당이 주가 될 것이며, 둘째날 프로그램은 여성연대 한 판의 내용을 총화하고 서로간의 마음 다지기가 주가 될 듯하다. 한 판의 처음과 마무리를 구성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중요함... 준비자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 아 - 자



소개 프로그램 및 친해지기 마당 - 모듬별 구성 및 참가자 소개 방식 (23일 낮)

1) 한판 출발식(단위별, 개인별 소개)

여성연대 한판을 출발하는 기적소리와 더불어 참가자들 모두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모듬을 구성하기 전에 참가단위별로 장기자랑 및 한판을 어떻게 단위에서 준비하고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한다. 즉, 온갖 문예역량을 부여한다. 방식은 자발적, 자율적으로.....

지역별, 권별, 개인별, 각각의 참가결과로 한판의 포문을 연다!

2) 모듬구성 및 중화

단위별로 소개와 참가 의의(?)를 밝히고 나면, 주제별 모듬을 나눈다. 모듬구성은 이름 우화, 명작 만화, 여성영화 등에서 이야기판을 구성(세롭게)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선택하게 되면(자신의 개인적 특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호감가는), 연관성이 있는 주인공들로 한 모듬을 구성하게 된다. 모듬이 구성되면, 그 주인공들의 특성에 맞게 모듬별 특성과 이름을 짓는다. 모듬별 자치규칙이나, 질서도 자유롭다.

예를 들어, 권디, 빨강머리 앤, 뽀빠 라는 주인공들은 주근깨라는 특성으로 한 모듬이 된다. 이 주인공들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모듬이 되며, 모듬이름과 규약(얼굴에 주근깨를 계속 그리고 다니며,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등등)을 정한다. 그 질서에 따라 한판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판이 아니더라도 흔히 규정지어 버리는 여성성의 분류를 새롭게 재구성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역사적 인물이든 영화속 주인공이든 동화의 등장인물이든 정형화된 그녀들의 이미지를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해보고 자신에게도 있을 법한 그녀들과의 유사성을 동일시하면서 '새로찾는 나'를 한판기간동안 수행한다.

♀ 모듬별 총화

선택한 주인공 이름 옆에 참가자의 이름을 적고 그 주인공이 나로 동일시 된다면, 한판기간동안 새로운 여성주의자로서 재구성해도록 만든다. 처음소개자리(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단정 지었던 것)와는 다르게 총화판에서는 어떻게 변화했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듬별로 구성된 이름과 규칙, 나름의 이야기를 총화해내는 자리를 만든다.

3) 친해지기 마당-놀이판

모듬별 중화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다. 열린마음으로 참가자 전원모두가 전원모두에게 교감하는 자리이다. 놀이는 놀자고 하는 것이다. 머리를 쓰면 놀이가 아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휴식과 해방을 맛보게 하는 자리다. 최대한 몸이 가는대로, 마음이 닿는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

언어, 말과 시각에 의존해 대부분 상대방과의 교감과 소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를 통해 대화하고, 말과 시각에 대한 편견을 해체하는 감각단련을 진행한다. 최대한 뒤엎쳐보는 시간!

♀ 방식과 프로그램 소개

1. (실내) 모듬별로 이동하는데 프로그램별로 포스트를 정해 이동하면 된다.

코스별로 신체여행, 몸으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모듬구성원들과의 일차적 교감을 하는 자리로써, ▶시체놀이(영명 믿음의 연), ▶장님놀이(촉각 맛보기), ▶몸나무 굴러가기, ▶몸+몸 이라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2. (실외) 모듬별로 팀을 나누어 전체 놀이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밖으로 내어 놓는다'이고, 이것은 최대한 발성과 발악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 패미 나 스톤! 소리를 질러라

- 옥상으로 올라와서 아래를 향해 마음껏 발성을 한다. 발과 몸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가장자리 사이를 밟아보는 일도

마음이 보인 거다. 내일은 자오 자오

▶GUN FOR 제너리

- 어떤 무기를 들고, 몸통으로 (몸통으로) 쏘아 보는다. 그리고 온몸이 대상을 향해 버티자

3. (실내) 총화 프로그램으로 전체가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다. 놀이판을 정리하면서 여성주의자들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손잡고 손잡고, 공이 실타래를 거꾸로 걸었다

▶눈으로 말하기, 신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눈빛이 중요하다.



여성제, 마녀 FESTIVAL(24일 밤)

2박3일간 수많은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발전적인 여성주의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것이다. 여성제와 마녀 페스티벌은 진지함과 유쾌함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한판의 모든 활동을 총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성제는 위령제의 형태가 될 것이고, 마녀 페스티벌은 가부장제를 죽이는 유쾌한 범죄자들의 가면 축제가 될 것이다.

- 1부 여성위령제 -죽음으로 너의 삶을 위로하리라-

여성억압의 세기말 현실을 눈앞에 직시하면서 그 동안 가부장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차별과 억압을 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는 위령제이다. 이것은 과거에 의존한다기 보다 현재에도 있고, 자신 내부에도 존재하는 한을 풀어내고



새로운 전년을 맞이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결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령제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림자극과 퍼포먼스로 구성이 된다.

- 2부 마녀 Festival & 악마 Party

-우리의 무기는 다양성, 차이들이다. 그것은 이미 공세적 실천이다.

가부장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부장제를 죽일 차례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화된 우리의 행동과 아름다운 반란으로 무장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전년을 맞이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전략을 구상해보고 즐겁고 유쾌한 범죄를 저질러 보는 판이다. 모듬별로 처음에 규정지어진 인물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냈다면, 주어진 주제에 따라 나름의 극과 음악, 노래등 등을 구성해본다. 주제별 내용을 중화하고



바로 여성문화 PARTY를 진행한다.

소주 칵테일과 어우러지는 마녀들의 다양한 장기자랑. 미리 장기를 준비해두면 더욱 좋겠죠? 귀뜸없이.....

- 3부

도로에서 우리의 대화를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1.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2.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3.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음의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